

KLPGA 임원 입후보 출마 포부서

2020년 힘들고 어려운 한해를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로 입후보한 회원번호 38번 김미회입니다.

KLPGA에 입문한지 34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1991년 상별위원으로 시작해서 이사, 감사, 상별위원장, 전무이사직을 수행했고, 현재는 CEO로서 태국에서 골프장을 6년 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의 많은 행정 경험과 사업가로의 비즈니스 능력을 토대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다양한 수익사업 확충과 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협회 중요한 수입원은 방송중계료 수입입니다.

이 중계권사업 아이디어를 전무시절에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여 협회와 회원여러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협회 행정, 사업가로서의 경험을 보아 어떤 후보보다도 협회의 확실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아직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KLPGA 회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서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02 월 19 일

성명 : 金 美 會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귀중